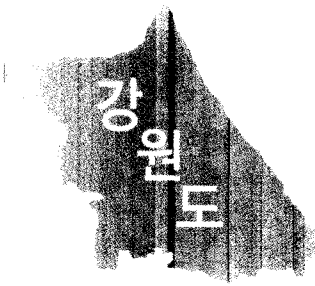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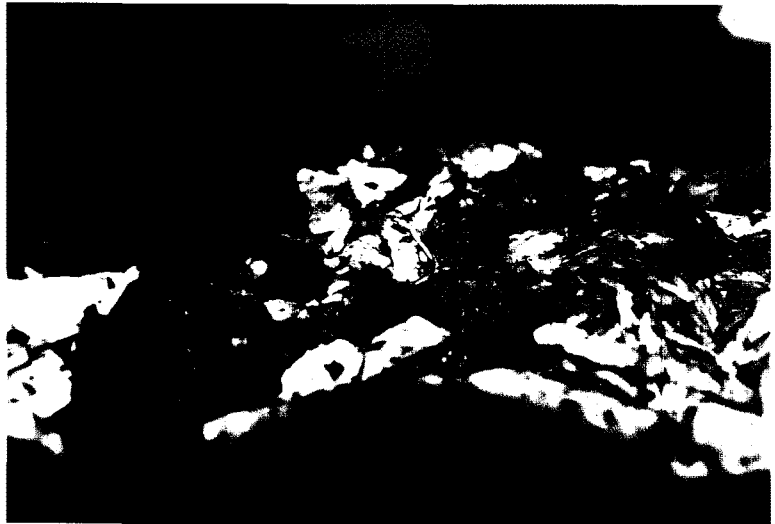
Feature articles

팔도 닭요리 유량을 떠나보세!



지역향토음식에서 대한민국 대표음식으로!

춘천닭갈비



맛있게 익어가는 닭갈비

봄이다. 산 넘고 물 건너온 바람엔 아직 한기가 묻어 있지만 피부에 닿는 느낌은 상쾌하다. 문득 떠나고 싶다. 어디로 갈까. 잠깐 반나절을 가도 먹을거리가 당기는 곳이면 더욱 좋다. 춘천은 그런 봄나들이에 적극 추천되는 곳이다. 서울과 가까운데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봄 풍경이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고 먹을거리로 춘천닭갈비가 언뜻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경춘선 전철 개통으로 교통이 한결 편리해짐으로써 춘천을 찾는 상춘객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새로 개통된 경춘선 기차는 노인과 장애인의 무료 승차가 가능해짐으로써



노금호 기자
축산신문



춘천은 실버 나들이 지역으로, 닭갈비는 실버 먹을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춘천닭갈비 맛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 중의 한 일원이 돼 보았다.

‘서민갈비’에서 시작된 춘천닭갈비

보통 사람들은, 닭갈비는 닭의 갈비를 발라서 요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닭 부위의 넓적다리를 토막낸 후 닭을 포를 뜨듯이 도톰하게 펴서 양념에 재웠다가 갖은 야채와 함께 철판에 볶아 먹는 요리, 그것이 닭갈비다.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어 보지 않고 춘천에 가봤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춘천닭갈비는 유명하다.

강원도 춘천의 향토음식으로 춘천닭갈비의 역사는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말 선술집에서 막걸리 안주로 닭갈비를 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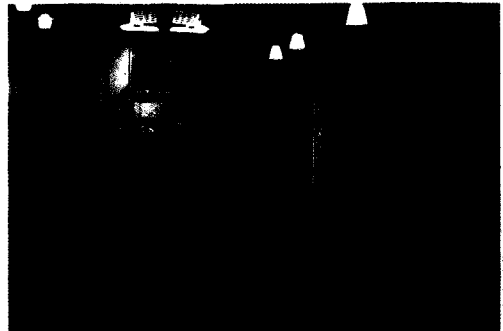
에 구워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춘천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기까지 과정이 재미있다. 당시 인근에서 군대 생활하던 장병들에 의해 하나둘 알려졌고, 값이 싸면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춘천 시내 대학생들이 즐겨 찾으면서 점차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춘천닭갈비를 추억하는 사람들은 그 때 그 푸짐하고 구수한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아울러 젊은 날의 우정과 사랑의 추억도 그 춘천닭갈비와 함께 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춘천지역에 닭 사육이 많았다는 것이다. 닭갈비의 유명세는 닭고기 생산농가들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닭갈비는 지금도 그 맛과 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70년대 초 닭갈비 1대 값은 100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별명이 ‘대학생갈비’, ‘서민갈비’였다고 한다.

그런 춘천닭갈비가 이제 지역향토음식이라기 보다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대한민국 대표음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닭갈비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기는 음식이다.



닭갈비 1인분인데도 적지 않은 양이다.

점점 더 진화하는 '춘천닭갈비'

춘천닭갈비 맛을 찾아 서울 상봉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역에서 내렸다. 역 앞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닭갈비 골목인 '명동닭갈비 골목'으로 향했다. 초행길이라 택시를 탔지만 기본요금이면 명동닭갈비 집 앞까지 갈 수 있다. 여유가 있어 주위를 감상하고 싶으면 역에서 빠른 걸음으로 10분에서 20분이면 접할 수 있는 거리다.

명동거리에 들어서자 양쪽으로 수많은 닭갈비집이 늘어서 있다. 주중이지만 식당마다 빼곡히 앉아있는 소비자들을 보면서 춘천닭갈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조그마한 닭갈비집에 들어섰다. 메뉴에 적힌 닭갈비, 닭내장, 막국수, 쟁반국수 등 다양한 먹을거리마다 입맛을 다시게 한다.

닭갈비 1인분을 시켰다. 양배추와 떡볶이 떡, 두툼한 닭갈비살 등 푸짐한 한상차림이 침샘을 자극한다. 이 닭갈비 맛에 대한 추억을 지니고 있을 30~40년 전의 군장병, 대학생들 생각하니 기자도 어느새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이 든다. 닭갈비를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 우동 사리를 추가해서 먹는 맛도 일품이다.

이곳 박성복 사장은 "경춘선 전철로 인해 수입이 지난해보다 10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춘천의 닭갈비업소에서는 1인분에 300g으로 통일하고 소비자에게 푸짐하게 주기로 해 더욱 사랑받는 업소로 거듭나고 있다"며 연신 웃는 표정이다.

박 사장은 또 "주말이 되면 청장년층들은 30% 정도 늘었지만 노년의 부부와 친구들, 일명 실버세대들이 50% 이상 늘어났으며 그만큼 더 소비를 해줌으로 인해 실버세대의 입맛에 맞는 요리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춘천은 닭갈비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춘천의 명소인 '소양강댐'과 '김유정문학촌', '춘천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명소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춘천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매력적이다. 춘천은 그야말로 추억만들기의 무대로 손색이 없다. 춘천닭갈비는 그 추억 만들기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손수 기자의 닭갈비를 요리해주는 사장님